

연중 제22주일

기도서 424 면(A해)

제1독서: 예 레 20,7-9

제2독서: 로 마 12,1-2

복 음: 마 태 16,21-27

숲 정 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홍보국
인쇄	관리국

편집실: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강론



“주님, 안됩니다”

현 유 복 신부

고난을 받아들이겠다는 주님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감히 내 놓은 말이다. 스승이시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마태 16, 16) 어떻게 만민 앞에서 치욕을 그대로 당하실 수 있는냐는 항변이다. 당초 말도 안된다는 베드로의 만류에 예수님은 불호령을 치신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장애물이다”(마태 16, 23).

하느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심각하게 드러난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거의 매일 들어 새기고,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고 기도 때마다 다짐해 보지만 번번이 하느님의 일보다는 나의 일을 더 중히 여기고 더 앞서 주장하는 잘못을 범한다.

“노동법을 개정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플래카드를 성당 문앞에 걸어 놓았을 때 여러사람들의 반응이 왔다. 어느 신자가 조심스런 충고(?) 조로 말을 건네었다. “신부님, 이 고장은 이려고 저려고해서 플래카드는 안됩니다.” 안된다는 것들이 뭐가 그리 많은가? 해야 할 것들을 잘 알면서도, 하느님의 뜻을 뻔히 알면서도 기피하고 외면하는 우리의 처세술은 그리스도의 수난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요, 하느님의 일보다는 나의 일, 현세의 일을 더 중히 여기는 소치이다. 귀피리만한 체면 때문에 안되는 것도 많고 시간이 없어서 안되는 것도 있고, 주판알을 튕겨보니 안되는 것도 많다. 하느님의 뜻은 뒤틀린 문제요 그분의 간섭은 오히려 처세하는 데 방해거리로 나타난다. 그래서 늘 이렇게 뇌까린다. “주님, 미안합니다. 안되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용서……”

알면서 똥싸는 식의 삶을 얼마나 더 계속해야 하는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마태 16, 24)고 주님은 말씀하신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치욕도 아니요, 어리석음도 아니며 더더욱 손해도 아니다.

온전히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만을 찾을 때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고, 더 큰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주여, 당신의 뜻만을 따르는 데 필요한 믿음과 사랑과 용기를 주소서. 아멘 (남원 주임신부)



멈추게 해야

—순교 성월애—

우리는 해마다 9월이면 복자성월이라 해서 특별한 마음가짐으로 지내왔다. 그 보람과 주님의 크신 뜻으로 우리도 103위의 성인을 모시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처음 맞는 「한국 성인의 날」(9월 20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들뜨게 되었다. 그런데 한국 천주교회가 제 3세기를 향해서 첫발을 내딛는 이때에,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참으로 주님께 영광으로 봉헌되고 있는가? 이 물음이야말로 순교 성월을 지내는 우리에게 곱혀한 자기 반성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해방된 지 40년, 소위 민주정부가 세워진 지 35년이 되는 오늘을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처지는 어떠한가?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깨뜨려야 할 허구와 바로잡아야 할 불의가 수없이 넘실대고 있다. 이것들은 우리를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다. 이토록 우리를 움아매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모두인 교회의 사명은 인간구원과 현재질서의 세신을 통한 아버지의 뜻을 이룸에 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다.

왜 사람들은 ‘민나 도로보레스’라는 일본말로 울분을 터뜨리는가? 나라의 주인인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직자를 만나기 때문이다. 왜 우리들은 바보스러운 발음의 ‘모르겠네요’로 허탈한 심정을 달래며 쓴웃음을 짓는가? 너무나도 진실(사실)에 접근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불쌍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유행어로 비추어 본 우리의 딱한 현실, 참으로 한심하고 심각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여 서로가 믿고 사는 밝은 천지를 만드는 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케도를 벗어나 위험하게 내닫는 차를 멈추게 하는 일은 힘이 든다. 그래서 제각기 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

숲 정 이 산책



□ 노동 관계법 개정 서명운동 ⑤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노동조건을 보장해야 한다(2)

3. 최저 임금제를 실시해야 한다.

헌법 제30조 1항에 “국가는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근로기준법의 최저 임금 조항(제34조)은 노동부장관이 필요에 따라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임의 규정에 불과하여, 세계 100 여개국에서 채택되고 있는 최저 임금제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이래 30년이 지난 오늘까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임금은 최저 생계비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며, 남녀별, 학력별, 직종별 임금격차 구조는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이 최저생계비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저 임금제가 채택되어야 한다.

4. 부당해고의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980년 이후 정치적 이유나 불경기라는 명분으로 대량 해고사태가 발생하고, 소위 블랙리스트에 의한 부당해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은 헌법 제30조에 보장된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태이다. 근로기준법 제27조 1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제27조의 2와 제2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해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부나 권익을 주장하는 노동자를 부당해고할 수 있는 구실이 부여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특히 시행령 제10조에 의해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부나 권익을 주장하는 노동자를 부당해고할 수 있는 구실이 부여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특히 시행령 제10조에 해고할 수 있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상 지장초래, 사업의 위신추락, 사회적 물의 야기라는 기준을 둔 것은 애매하여 남용될 우려가 크며, 더우기 노동위원회의 기능이 독립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공정치 못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시행령이 악용될 소지는 더욱 많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직장 안정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 의한 부당해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은 과감하게 개정되어야 하며, 특히 시행령 제10조는 폐지되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 교회 간행물 구독자들에게

교회 정기 간행물—가톨릭 신문, 경향잡지, 생활성서—구독료를 미납하신 분들은 교구청 홍보국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대체 : 400010-31-9026907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천주교 전주교구청 홍보국

□전주교구 성지⑦

감 옥 터

전주의 감옥은 좌·우 옥이 있어서 현재의 경찰서 자리가 우옥이고 대학병원 자리가 좌옥이다. 대학병원 일대는 옥거리로 불려오다가 오늘날은 오거리가 되었지만 신앙의 역사에서 감옥은 영신 수련의 학교 구실을 하였다. 감옥에서 치명한 순교자는 상당한 수가 되지만 우리의 기억에 또렷한 분들이 있다.

1801년 신유 박해 때 동정부부인 유 요한(중철)과 그의 동생 유 문석이 10월 9일 옥중 교살되었다.

1829년 정해 박해때는 240여명이 넘는 천주교도들이 감금되어 초만원울 이루었고 전주 고을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다 하니 참혹상은 가히 상상하고 남음이 있다.

이때 이 누갈따의 동생 이 경언 바오로가 옥사하였다.

1839년 기해 박해에 옥사한 12명중 너무 아름다워 낭만적인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분은 12세 소녀의 몸으로 뚜렷하게 하느님의 사랑을 증언하며 치명한 아나다시아 봉금이다. 이봉금의 순교로 이땅은 세계 최연소의 순교자를 갖게 되었으니 성녀 아네스보다 한 살이 더 적은 것이다.

옥중에서 가장 긴 세월을 보낸 분들은 1827년 기해 박해때 체포되어 13년의 옥고를 치른 분들이다. 그들은 옥중에서 기도와 말씀의 목상이 생활화 되어 밤이면 등불을 켜놓고 모두 함께 성서를 읽으면서 큰소리로 공동기도를 드렸다. 감옥이야말로 자기를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수난에 참여할 수 있는 곳으로, 감옥은 덕을 배우는 학교로 변하였고, 화복이 넘쳐 모든 행동과 말이 규율이 잡힌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몸은 상처 투성이었지만 함께 기도하고 갇힌 사람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수난의 신비를 묵상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외교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아름다운 덕행이어서 오히려 그들의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천주교의 신앙은 옥중에서 완성되어 갔다. 죽음을 예비시키려던 감옥이 오늘날 옥신의 죽음을 예비시키는 병원으로 바뀌었으니, 생각하는 이들로 하여금 조용한 사색으로 이끌고 있다.

나환자 돕기 사랑 나눔의 상품 전시회

장 소 : 이리 ()

기 간 : 9월 2~9일 오전 9시~밤 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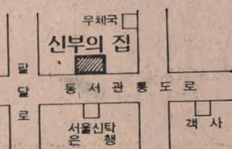
상품종류 : ① 의류 ② 생활필수품 ③ 토산품

④ 폐저용품 ⑤ 음료수 ⑥ 팔도미락

☆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신부의집 (DRESS SALON.)

(마춤 · 빌림 · 반환 · 판매)



- 웨딩드레스 ● 약 혼복
- 연 주복 ● 신부화장
- 페백의상 ● 부 케
- 야외촬영서비스 (악세서리)

관통도로 서울신탁은행 앞

대표 최영자 (텔레니)

☎ 6-6951

숯명동피부과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비뇨기과, 병리검사

원장 전문의 최창기(루카)
부설 : 임상병리 검사실
임상병리사 임윤자

☎ 1719, 170616 (원장실)
(구여전오거리, 팔달로동편 2층)

□ 교황님 말씀



용기를 내십시오

친애하는 근로자, 농민, 어민 여러분, 여러분 나라에 이 '새 땅'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 수백만 동료와의 유대 안에서 많은 고생을 해왔고 아직도 하고 있음을 나는 압니다.

무관심과 오해와 심지어는 시달림 앞에서도 동료 근로자와 농민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투신하는 그리스도 신자로서 여러분은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십자가를 저였습니다. 우리 모두 협동하여 이 세상의 부의 더 의로운 분배는 특히 정당한 임금을 통해 그 부의 혜택을 입는 데에 있다는 것을 형제애로써 보여야 합니다.

복음 말씀에서 용기를 얻으십시오. 여러분이 방금 들으신 복음화의 말씀은 가난한 이와 억눌린 이들을 위하여 온갖 형태의 불의와 사회적 또는 개인적 이기심을 거슬러,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하느님 나라는 여러분의 것입니다"(루가 6, 20). 단 여러분의 목표와 생활을 위해 정의와 타당한 요구를 하면서도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행동"(야콥 2, 17) 또한 이웃을 위해 언제나 정의를 촉진시키고 있는가를 분명히 살피십시오. (1984. 5. 5. 농어민과의 만남에서)

□ 제2차 심성계발 프로그램

장점이 단점이고 단점은 장점일 수 있다고 말한다. 어우러져 살아야만 하는 나는 과연 사회의 요구에 잘 적응하며 타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가? 자기 발전의 시도는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하고 그로써 복된 삶을 누려야 한다.

일 시 : 1984. 9. 15. 오후 3시~16일

장 소 : 교육관(가톨릭 센터 내)

모집인원 : 20명(선착순)

강 사 : 신 옥희(빛다) 선생

참 가 비 : 7,000원

접수 및 문의 : 교육국 ⑥ 0041~3

□ 교회 상식

신자들이 지낼 수 있는 제사양식

가톨릭 신자들도 제사를 지낼 수 있다. 어떠한 방법과 형식으로 드릴 것인가? 무엇보다 큰 가족이 분당에서 바쳐지는 합동위령미사에 참여해야 되겠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린다면 신자로서 의미있는 추석을 보내게 될 것이다.

준비 : 집 안팎 청소, 단정한 옷, 고백성사(마음을 깨끗이), 차례상은 온 가족이 좋아 하는 음식으로 정성껏 준비, 벽에는 십자가상을 걸고 그 밑에 선조의 사진을 모심, 차례상에 두 개의 촛불을 켜, 차례상 앞에 깨끗한 돗자리나 깔개를 편다.

순서 : ①성가(「공」 357, 358) ②성서 봉독(다음의 구절중 하나 선택 「ㄱ」요한 14, 1-4 「ㄴ」요한 15, 1-12 「ㄷ」요한 17, 1-26 「ㄹ」루가 2, 41-52 「ㄴ」마태 5, 1-12 「ㄷ」로마 9, 1-18 「ㄴ」로마 12, 1-21 「ㅇ」고린 13, 1-13 「ㅈ」에페 5, 6-20) ③가장의 말씀 : 선조들을 소개하고 가훈, 가풍, 선조의 말씀을 전해 준다. 오늘의 집안 현실과 앞으로 전망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하느님의 말씀과 선조의 유훈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감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대화를 통하여 사랑의 일치를 다진다. ④큰 절 : 서열 순으로 큰 절을 올린다. ⑤사도신경, 부모, 자녀를 위한 기도, 부부의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를 드린다. ⑥참석자는 모두 신자들의 기도를 바친다. ⑦성가 ⑧주의 기도 ⑨식사 : 차례 음식을 나눈다. ⑩성호 : 예식이 모두 끝난다.

추석 합동 위령미사에 빠짐없이 참여합니다.



미영칼라현상소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시스템의 현상 인화기 신설
☎ ⑥ 3651-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병전(토마스모어)
이영의(투리포니아)

신속배달 설비시설
한국 가스 상사
☎ 3-1457-72-0612
김성두(토마스)
이미자(안젤라)

황금 왕우렁이 분양
소자본으로 누구나 손쉽게 부업을 할 수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74-1397
안덕원 중점
한기수(마테오)
백창순(재마)

영진 비디오 음악사
결혼·회갑·각종행사
촬영 전문
비디오 테이프 판매 교환
카세트테이프·레코드판매
전화 2-4094
채석자(글라라)
(전주백화점~한아름백화점 사이)

위상양내과의원
◎ 종합검사 내시경 및 초음파 검사시설완비
전주시 고사동 1가 184 (구 역전오거리)
☎ ②9152-1752
위상양(프란치스코)
김병희(글라라)



- ☆ **축! 검진:** 상관 본당-2일
 1. **어린이들의 모후 소녀 꾸리아 피정:** 2일 오전 9시30분~오후 4시30분, 장소-전동성당
 대상-소녀 브레시디움 전단원, 지참물-각 브레시디움별로 도시락 지참
 2. **군중후원회 윌레미사:** 3일 오후 7시30분, 장소-센타 3층 성당
 3. **교구 사제 검진일(빠지신 분):** 3일~4일 오전 9시~12시, 장소-교구청 회의실, 주의-아침 완전 공복
 4. **푸른군대 특별피정:** 6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노송동성당, 대상-레지오단원·푸른군대 회원·일 반 신자, 준비물-미사준비, 회비-1천원(식사하실 분+1천원)
 5. **제4지구 교리교사 회의:** 2일 오후 2시30분, 장소-김계성당
 6. **제1지구 추석합동 위령미사:** 10일(추석) 오전 10시30분, 장소-전주지구 공동묘지(완주군 용진면) 10시30분-연도, 11시-미사(주교님 집전)
 7. **여성 제17차 꾸리실로:** ①9월 29일 오후 5시부터 10월2일까지 ②수강 희망자는 본당신부님과 상의 바람
 □ **축! 영명:** 성 모이세(4일)-이 상섭 신부님

제 1 지구 각 본당 소식 ①

(중앙)

전화 ①7111~3

주임 신부 문 정훈
 보좌 신부 나 김철
 사도 회장 김 인철

1. 사도회: 공식미사 후
 2. 꾸리아: 16일 오후 2시(추석 관계로)
 3. 주일학교 교리교사 회의: 젊은이들(남자 환영), 접수-본당 사무실
 4. 추석합동 위령미사: 10일 10시30분 공동묘지 본당미사-6시·7시
 5. 돼지저금통: 16일까지 본당사무실, 교적번호 기입오
 6. 제대꽃 봉헌: 감사합니다(익명)
 7. 병자방문: 4일
 8. 습득물: 시계, 주인을 찾습니다
 9. 복자반 영세: 16일 공식미사 중
- 종합교리: 12일~13일 오후 7시30분, 장소-장당 면접: 성인-14일 오전 9시~10시· 오후 7시30분, 학생-15일 오후 5시
- 예절연습-15일 오후 저녁미사 후 성당에서
- **지난주 봉헌금:** 966,425원 **교무금:** 618,000원
 감사헌금: 흥아오스당-5천원

(노송동)

신부 ①0969번
 수·사 ①7032

주임 신부 김 동태
 보좌 신부 이 선우
 사도 회장 이 출재

1. 정성과 희생으로 새성전 건립하자: 박은혜-50만원 노광식-24만원, 임태순·최말지나-각 15만원, 진성호·김명수·문예순·박태준·최성기·안기주·노광열·김귀선·방요셉·이길심·김부월·김현희-각 10만원, 소계-2,240,000원, 누계-99,536,000원
 2. 추석합동 위령미사: 각 가정의 선영들을 위해 미사 예불봉헌 합니다. 사무실에서 접수중
 3. 대의원 윌레회: 오늘 공식미사 후
 4. 미사시간 변경: 오늘부터, 아침미사 6시-월·수·금·토·일, 저녁미사 7시-화·수·목·금 착오없기 바람
 5. 예수성심회 윌레회: 4일 어머니미사 후
 6. 푸른군대 피정: 6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7. 본당 울뜨레아: 오늘 저녁8시, 꾸리실리스타들 참여
 8. 공소 순회미사: 8일 저녁 8시, 신교리공소
 9. 차주전례: 제3조, 빠짐없이 나오세요
- **지난주 봉헌금:** 391,710원 **아파트:** 136,160원
교무금: 307,800원 **아파트:** 415,500원

(덕진)

신부(3)2182
 수녀(72)1222
 사무(72)6259

주임 신부 김 봉희
 보좌 신부 김 양열
 사도 회장 양 상안

1. 오늘의 모임: 요셉회, L.M.꾸리아, 오후 2시
 2. 주일학교 개학: 오늘 오후 2시
 3. 가리따스 자모회 윌레회: 4일 오후 2시
 4. 성심부녀회 윌레회: 5일 오전 10시
 5. 예비자교리 개강(금주): 친절한 인도 바랍니다
 화요일 오전 10시-주부·일반(원장수녀님 지도)
 수요일 저녁 8시-젊은이반(보좌신부님 지도)
 목요일 저녁 8시-직장인반(본당신부님 지도)
 금요일 저녁 8시-어머니반(강수녀님 지도)
 토요일 오후 3시-중·고생(강수녀님 지도)
 6. 영세자 모임: 12일
 7. 순교자의 달(9월): 매일 새벽 5시30분에 순정이(해성학교) 성지에서 미사 봉헌 ※본당미사는 저녁에만
 8. 추석합동 위령미사: 10일 오전 10시30분 교회묘지에 서(사무실에 미리 신청 바람)
 9. 금주 본당청소: 8일 오후 3시, 청년연합회
- **지난주 봉헌금:** 556,410원 **교무금:** 296,000원

(북자)

사체관 75-0592 주임 신부 권 영규
 사·수 2-5238 사도 회장 김 성원

1. 주남부 교무금 완납하여 본당운영에 협조합니다
 2. 예비자교리: 매주 공식미사후, 매주 수요일 오후8시
 3. 추석합동 위령미사: 10일 저녁 8시 (새벽미사 없음)
 4. 주일학교 개학: 오늘부터 오후 2시, 미사 3시
 5. 어머니성가대 성가연습: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6. 유아세례: 6일 저녁미사 후, 미리 사무실에 접수
 7. 금주 성당청소: 월-사도의 모후, 토-자비의 모후 차주 성당청소: 월-평화의 모후, 토-구세주의 모친
 8. 금주전례: 해설-이덕열, 독서-①조성호 ②강기연 차주전례: 해설-김인식, 독서-①이중원 ②정운주
- **지난주 봉헌금:** 154,180원 **교무금:** 773,700원

(서학동)

신부 ①8307번 주임 신부 김 동준
 수녀 ①2276번 사도 회장 김 낙균

1. 모임: 자모회-4일 오전 10시 30분, 반장회의-차주 공식미사 후, 사도회-6일 7시 저녁미사 후, 꾸리아-다음주일 오후 2시, 성심회-13일 오후 2시
 2. 추석미사 시간: 새벽 6시, 선영을 위하여 미사 봉헌
 3. 주일학교 개학: 다음주일부터(9일)
 4. 미사시간 변경: 새벽미사-6시, 저녁미사-7시 차주전례: 해설-김배근·고정수 독서-①김민수 ②김병희, 기도-천사의 모후Pr
- **지난주 봉헌금:** 353,387원 **교무금:** 278,500원

(순정이)

전화 ①7366 주임 신부 김 중길
 수·유 ①9567 사도 회장 김 수겸

1. 추석합동 위령미사: 10일 오전 10시
 2. 미사시간 변경: 11일부터 칠시 저녁미사-오후 7시, 중고생미사-(토)오후 6시30분
 3. 사도회 윌레회: 오늘 공식미사 후
 4. 금년 영세자 모임(84. 4. 21): 18일(화)
 5. 누갈마 부녀회: 12일 10시 미사후
 6. 돈보스교회: 세미나를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
 7. 금주전례: 해설-이기호, 독서-기도-홍삼·정송차 차주전례: 해설-이기호, 독서-기도-홍성조·김영희
- **지난주 봉헌금:** 211,200원 **교무금:** 392,800원

(전동)

신부 ①6208 주임 신부 김 치삼
 사무 ①3222 보좌 신부 정 양현
 수녀 ①8347 사도 회장 김 병오

1. 사도회: 공식미사 후
 2. 유아세례: 학생미사 후
 3. 장우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자모회 피정: 7일 오전 9시~오후 5시
 5. 자모회 정기총회: 8일 오전 10시 미사 있음
 6. 성령기도회: 매주(목) 저녁미사 후
 7. 추석합동 위령미사: 10일
 8. 감사: 이금옥씨-성함 헌납(30만원)
 9.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이주영, 독서-①최병래 ②최정식
 공식미사: 해설-이준영, 독서-①이영태 ②김홍기
 저녁미사: 해설-김윤주, 독서-①이 훈 ②최중만
- **지난주 봉헌금:** 843,070원 **교무금:** 408,500원

(홍자동)

신부 75-3841 주임신부 박 중신
 수녀 2-4804 사도회장 이 교성
 사무 2-0915

1. 주일학교 개학: 2일, 토요일 오후 4시까지 보내세요
 2. 유치원 개학식: 4일
 3. 사도회 전체회의: 공식미사 후
 4. 추석 합동미사: 10일 본당에서, 6시 미사
- **지난주 봉헌금:** 319,500원 **교무금:** 549,000원